

# 예비 고3부터 자소서 전면 폐지... 수능 응시생 역대 최저

## 2024학년도 대입 포인트

내신성적·세부능력 등 영향력 확대  
성적·발표·프로젝트 등 역량 중요

고3 수능 응시생 28.4만여명 추정  
재수생 5천~8천명 감소 예상돼  
논술전형 실시 36곳→38곳 확대

2023학년도 대입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2024학년도 대입 레이스는 벌써 시작됐다. 올해는 수험생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과 동시에 대입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면서 철저한 학습 관리·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 ◆자소서 전면 폐지...내신·세특 중요성 커져

2024학년도부터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평가되는 만큼 내신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내 활동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서류에 대한 부담은 줄었으나,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축소됐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고 할 수 있다"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예비 고3 학생들은 성적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진행되는 발표, 토론,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는 전공별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지정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평가에 반영한다. 전공별 연계 교과이수 과목이란 각 모집단위별로 고교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과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과목 선택 및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다만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 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제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입 분위기의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는 자소서 폐지로 내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로 도입될 경우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절대평가 도입 시 내신의 변별력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방대학, 중하위권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신 부담이 크게 완화돼 수시에 집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방대학들의 충원이 수월할지는 미지수라고 침안하면서 대학간 양극화를 우려했다.

### ◆2024학년도 '최대 미달' 맞보기해... 학령인구 역대급 저조

종로학원 분석에 의하면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예상될 정도로 수험생이 적은 해다. 수능 응시생 기준 집계가 시작된 2005학년도 이후 고3 수능 응시생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21학년도로 29만5116명이었고, 최고는 2011학년도로 51만893명이었다. 2024학년도에는 그 기록을 깨고 28만4000명대로 추정됐다.

올해 고3 학생 수를 살펴봤을 때, 지방에서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지난해 대비 9.6% 감소한 규모다.

또한, 올해 수능 흐름상 재수생도 지난해 13만9385명보다 약 5000명에서 8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졸업생 수가 줄면서 재수 규모 대상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 2023학년도 정시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정시에 최종 탈락하는 규모도 감소하는 연쇄 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재수생 비율 자체는 높을 예정이다.

임 이사는 "각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따라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등과 연계된 선제적 공동 대응 필요 상황"이라며 "합격점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논술 전형 소폭 확대...대학별 전형 변화 다양해

2024학년도에는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36개에서 38개로 소폭 증가한다. 기존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논술전형을 신설 학교들이 생기면서 모집규모 자체는 유지됐다. ▲한양대(ERICA) ▲울산대(의예)가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논술전형을 신설, 서경대가 교과전형으로 운영하던 논술을 논술전형으로 변경한다.

임 이사는 "통합 수능 등 수능 점수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격의 보장을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논술 고사보다는 수능에 올인하는 쪽이 합리적인 것"이라며 "이런 기조에서는 수험생들도 내신과 수능, 아예 양극단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도 올해 정시에서 교과성적을 도입한 '교과우수 전형'을 신설했다. 서울대는 정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과학II(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목의 필수 응시 제한을 폐지했으며, 한양대도 과학탐구II 변환표준점수 3% 가산 제도 폐지와 더불어 해당 조항을 신설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자연계 '취업', 인문계 '대학 브랜드' 선호

### 주요 11개 대 경쟁률 상위 3개학과 자연계열 선호도 1위 '컴퓨터 학과' 인문계열 '외국어 관련 학과' 꼽아

최근 3년간 주요대 정시에서 자연계열은 컴퓨터,반도체, 인문계열은 외국어 관련학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는 취업 중심 선호가 높은 반면, 인문계는 대학 브랜드에 따라 선호가 갈렸다는 분석이다.

24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서연고 등 주요 11개 대학의 경쟁률 상위 3개 학과 수를 집계해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자연계열에서는 컴퓨터 관련 학과, 인문계열에서는 외국어 관련 학과 정시 기준 선호학과 1위에 꼽혔다.

자연계열은 ▲2021학년도에 생명 관련, 컴퓨터 관련, 식품 등 관련 학과 ▲

2022학년도에 인공지능(AI), 생명 관련, 컴퓨터 관련 학과 ▲2023학년도에는 컴퓨터 관련 학과, 반도체 관련 학과, 인공지능(AI)가 우세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선호학과 추이는 취업, 첨단산업 등과 관련된 학과 특성이 고려된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대체로 자연계열에서는 해당 대학내에서도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수능 점수 기준으로 상위권 학과로 특정할 수 있다"며 "최근 취업에서 유리하고, 정부정책, 대기업과 연계된 학과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인문계열에서는 외국어 관련 학과가 3년 연속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외국어 다음으로 사회과학, 경영이 2위, 3

위권이다. 인문계열 중 외국어 관련 학과 대학 내에서 높은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있다. 종로학원은 최근 3년 연속 외국어 관련 학과가 각 대학 내 경쟁률 최상위권 학과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문계열은 전반적으로 대학 브랜드를 주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임 이사는 "자연계열은 의학계열 선호에 따른 집중도로 상위권 학생들이 분산되고, 연세적으로 의학계열을 제외한 일반학과도 취업 등의 인기학과 쪽으로 더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반면, 인문계열은 통합수능에서 이과 학생들에게 불리한 점수,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 등과 맞물려 특정학과 집중보다 대학 브랜드 선호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 원광디지털대, 신·편입생 2차모집 진행

내달 15일까지 3개학부 17개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일반전형뿐 아니라 산업체전형, 군위탁전형, 장애인전형, 기회균등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등도 모집하며, 3학년 학사편입학은 조기 마감으로 인해 모집하지 않는다.

모집학과는 3개 학부 17개 과목로 ▲웰빙건강학부(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학과, 차(茶)

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다.

장학대상을 연령, 직업, 가구 등으로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없앤 원광디지털대에서는 이미 재학생 58%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2022학년도 1학기 기준). 2021학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장학금은 등록금의 69%인 195만원이다. 국가장학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

## 한국외대, 진로취업지원 서포터즈 수료식

진로취업지원센터 등 적극 홍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최근 '제1기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 서포터즈'의 3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개최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 서포터즈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의 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월별 미션을 수행하며 대학일자리플

러스센터사업과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서포터즈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학생들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창설한 서포터즈 1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학생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활동 보고, 우수 학생 시상, 수료증명

서 수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수료식에서 우수 학생으로 서포터즈 학생대표이주연(영어교육·21)을 비롯해 심예지(EL.LT·21), 엄성희(중국언어문화·21), 이유진(차이나데이터큐레이션전공·21) 학생이 선정돼 표창과 부상을 받았다.

한편, 한국외대는 2015년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더욱 강화된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신하은 기자

## 세종대 왕탁·장일주, 우수논문상 수상

중국 중심 문화상품디자인 등 분석

세종대학교는 왕탁(WANG TUO) 경제학과박사과정생과 장일주(ZHANG YIZHOU) 객원교수가 지난달 10일 한국문화산업학회에서 2022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상논문 제목은 'Research on the Design and Influence of Cultural Product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이다. 수상 논문은 중국을 중심으로 문화상품디자인과 창조경제시대에 경제발전의 관계를 분석하며 문화상품디자인의 경제수익과 문화상품의 홍보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왕탁 박사과정생(왼쪽)과 장일주 객원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왕 박사과정생과 장 객원교수는 Cobb-Douglas 생산함수 모델을 통해 문화상품디자인과 경제발전에 대한 관계를 탐구했다. /신하은 기자